'지망대 명단 작성' 전공·대학원 진학 고려해야

지나 김의 대입가이드

지나 김
시니어 디렉터
어드미션 매스터즈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 대학 졸업 후의 사오십 년 이상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대학은 인생의 새로운 챕터다. 그 대학이라는 곳은 고등학교 시절의 퍼포먼스를 보고 합격을 결정한다. 따라서 지금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라면 지금 이 시간이 그들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다. 특히 11학년은 올 가을 다가오는 대학지원을 위해 지원 대학 리스트를 만드느라 고심을 하고 있다.

4월과 5월이 되면 AP 테스트 준비와 SAT 서브젝트 테스트 준비, 그리고 학기말 고사 준비 등으로 실로 바쁜 시기가 다가온다. 따라서 1월부터 3월에 걸쳐 대학리스트를 만들고 에세이 준비를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지원대 리스트 만들기

지원 대학을 선택할 때는 먼저 본인의 학업 성적과 함께 무엇을 전공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성적은 어림도 없는데 무조건 명문대학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자신이 하고 싶은 전공이 있는 대학인지, 또 그동안 쌓아온 기량을 이어갈 수 있는 지도 봐야 한다.

예를 들면 고교시절 양궁을 했지만 대학에 양궁팀이 없으면 본인의 기량은 무용지물이 된다. 자신의 성향은 도심 취향인데 꽉 막힌 시골에 있는 대학에서 4년을 보낼 생각도 해보자. 대학 선호도와 장소도 중요하다. 추위를 싫어하는 학생도 있다. 어떤 학생은 꼭 가톨릭 대학에 가고 싶어한다. 주립대 혹은 사립대를 갈 것인지, 여대는 싫은지, 개인의 취향도 봐야 한다. 캠퍼스 밖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대학 주변의 집값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대학에 따라 재정보조 또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부모의 수입과 재산에 따라 어느 정도의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학습 스타일과 기호에 따른 대학 선택은 대단히 중요하다. 일부 학생들에게는 대학 수업을 들을 때 클래스 사이즈가 작아 교수와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한 대학이 적당한 스타일도 있다.

자녀들에게 흥미 있는 대학, 즉 선호하는 대학이 어디인지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보아야만 한다.

대학 안내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학교의 정책이나 코스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정보도 수집해야 한다. 커리큘럼이 대학마다 다르고 전공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이 특별한 수업을 해낼 능력이 안 된다면 피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 대학에서 무슨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도 봐야 한다.

▶지원자의 성향·선호도 중요

대학원 진학을 위해 대학원 합격률이 높은 대학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 후 의대 지원을 계획한다면 명문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 진학해 의대를 지원하는 게 UCLA를 거쳐 의대를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합격률이 높기 때문이다.

대학이 끝이 아니고 이제는 대학원 진학이 더욱 요구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대학원에 지원하려면 역시 GPA 관리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수업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공과목 평균 수업 사이즈를 확인해 봐야 한다. 클래스는 대부분 강의, 토론, 실험으로 진행되는 지, 교수가 내는 시험이 사지선다형 문제인지 에세이 위주인지, 아니면 빅 프로젝트나 리포트로 채점을 하는지, 채점방식은 어떤지 알아보는 게 좋겠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전공을 하기 위해서 수학이나 외국어가 요구되는가? 만약 이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자신이 없다면 컴퓨터 코스나 국제관계학 코스로 필수과목을 대신할 수 있는가? 만약 장애가 있다면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면제받는 과목이 있는가? 매 학기마다 요구되는 최소 이수 학점은 얼마인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최소 12~15곳 정해야 안전

대부분의 한인 학생들은 대학 리스트를 작성할 때 미국에서 랭킹 50위권 안에 드는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랭킹 만으로는 과연 그 대학이 자신과 맞을 것인지 알 수 없다. 일부 한인 학부모들은 잘 모르는 이름은 다 나쁜 대학으로 생각하는데, 전문가와 상담해 도움받는 것이 좋다.

대학 리스트를 정할 때는 가고 싶은 대학 4곳, 개연성 있는 대학 4곳, 가능성 있는 대학 4곳, 안전한 대학 3곳을 선택할 것을 추천한다. 최근에는 많은 학생이 12개에서 15개 이상의 대학을 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추세다.

막연하게 명문대를 동경하는 마음으로 지원대학 리스트를 만들지 말 것을 조언한다.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자신과 매치가 되는 대학을 찾는 데 실패할 것이다.

지원자의 관심분야를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할 가능성을 최상으로 이끌어 주는 곳, 그곳이 자녀가 가야 할 대학이다.